

이마가 여자의 웃음에 긴장을 풀지 않겠나? 어떤 분노가 여자의 눈물에 저항하겠나? 비르지니는 자네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어 돌아올 걸세. 정원이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아주 놀라겠지, 그 아이는 어머니하고도 자네하고도 멀리 떨어져 친척집에서 수난을 당하면서도, 그 정원을 꾸밀 생각에만 빠져있으니 말이야.”

비르지니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풀은 기운을 되찾고 다시 농사일에 매진하게 되었네. 고된 가운데서도 노동의 끝에는 자신의 열정에 화답할 결실이 주어지리라는 생각에 행복했던 게야!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때는 바야흐로 1744년 12월 24일이었네), 잠에서 깨던 차에 풀은 조망의 언덕이 있는 산 위로 비죽 솟아오른 하얀 깃발 하나를 보았네. 이 깃발은 바다에서 배가 보인다는 신호였지. 풀은 혹여 비르지니의 소식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어. 관례에 따라 소식을 알아보려고 승선했던 도신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에서 기다렸네. 그 사내는 저녁이 되어 서야 돌아왔지. 그는 총독에게, 신고된 배는 생제랑호로, 오뱅이라는 선장의 지휘 하에 700톤 화물을 적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4리외 정도 떨어진 외해에 있고, 바람이 좋으면 이튿날 오후쯤이나 돼서 루이항에 닿을 내리려고 한다고 보고했네. 그때만 해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거든. 도신사는 이 배가 프랑스에서 실어온 편지들을 총독에게